만나고 싶었습니다

진미령 연예인전법단 전법지원단장

불심으로 빚어낸 노래, 전법의 길을 걷다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한국 가요계에서 '진미령'이라는 이름은 세월을 관통해 온 멜로디와 함께 기억된다. 1979년에 데뷔해 1980년대 대중의 사랑을 받은 감미로운 목소리, 무대 위의 세련된 자태는 여전히 많은 이들의 추억 속에 자리한다. 그러나 '진미령'이라는 이름을 불교계에서 부를 때, 그 울림은 조금 다르다. 인기 가수가 아니라 신심 두터운 불자로서 전법과 나눔의 길에 앞장서 온 인연 때문이다.

전법단장으로서의 발걸음

가수 진미령 씨는 1990년 대한불자가수회 창립과 함께 회원으로 활동하며 불자 연예인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활동해 왔다. 불교계 다양한 행사에는 언제든지 기꺼이 나섰다. 바쁜 방송 활동 중에도 사찰 법회나 불자 행사라면 시간을 내 함께하며 신행 공동체 속에서 기쁨을 나눴다. 2022년 조계종 연예인전법단이 출범할 때부터 핵심 멤버로 참여한 것도 이 때문이다. 단원으로서 종단 행사 참여와 승보공양, 사찰봉사 활동, 자선바자회, 효 잔치, 전국사찰노래자랑 등 문화포교 및 불교 대중화에 앞장섰다. 지난해 1월 조계종에 포교진흥기금 1000만원을 전달한 진미령 씨는 "연예인전법단 단원으로서 노래와 행동을 통해 부처님 법을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전하겠다는 소임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겠다"고 전하기도 했다.

현장에서 늘 솔선수범하며 연예인 불자들의 구심점이 돼 온 진 씨는 그 공을 인정받아 올해 7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으로부터 연예인전법단 전법지원단장으로 공식 임명됐다. 전법단에서 재가자가 단장 맡은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진 씨는 "단장이란 직책은 이름만 빌려주는 자리가 아니"라고 했다. 그는 "불자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제 노래를 통해 사람들에게 위안을 주고 불교를 알리는 일"이라며 "전법은 스님들만이 아니라 우리 같은 재가자도 함께 해야 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종교적 소속감을 넘어 삶을 관통하는 실천을 묵묵히 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의 활동은 전법에만 그치지 않는다. 불교계 유일 장기기증 희망등록 단체인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 스님)의 홍보대사로도 힘을 보태고 있다. 장기기증과 생명 존중 운동은 불교계가 앞장서 온 사회적 실천이기도 하다. 진미령 씨는 대중에게 친숙한 목소리와 얼굴을 지닌 이로서, 생명나눔의 가치를 세상에 알리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두터운 신심으로 전법 · 나눔에 앞장
불자가수회 창립 멤버로 솔선수범
첫 재가 연예인전법지원단장 임명

사경으로 불심 다지고 나눔 실천
'불자는 남 돕는 사람' 부친 가르침
"노래로 불법 전 세계 전하고파"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불심

불자다운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그의 삶의 뿌리는 아버지로부터 시작됐다. 아버지 김동석 대령은 한국전쟁 당시 인천상륙작전에도 큰 역할을 한 인물이다. 군인으로서의 굳건한 책임감은 가정에서도 이어졌다. 그리고 불교에 대한 열정은 가정을 더욱 단단히 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아버지는 평생을 불자로 살며 지역 사찰의 대소사에도 적극적으로 발걸음하곤 했다. 시주와 봉사는 물론, 사찰이 행정적으로 어려움에 처했을 때도 먼저 나서 힘을 보탰다. 그의 법명인 대자행(大慈行)도 아버지와 인연이 깊은 법화정사 회주 도림 스님이 내려줬다.

"아버지는 '불자는 남을 돕는 사람'이라는 말을 자주 하셨죠. 아버지가 보여 준 삶의 본보기는 지금 제가 불자로서 전법과 나눔의 길에 서게 된 가장 큰 밑거름이 됐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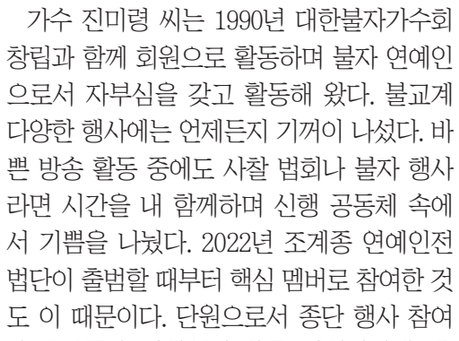
아버지로부터 이어받은 신심, 그리고 자신이 몸소 실천하며 다져 온 불심은 본업에서 빛을 발한다. 진 씨의 무대는 단순히 대중가요의 장르에 머물지 않는다. 그는 무대 위에서도, 법석 위에서도 노래한다. 때로는 신심 깊은 불자들을 위한 찬불가를, 때로는 불교계 행사장에서 희망을 노래한다. 노래는 곧 기도가 되고, 기도는 곧 전법이 될 것이라는 것이 믿음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라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법화경〉 사경…안식 찾는 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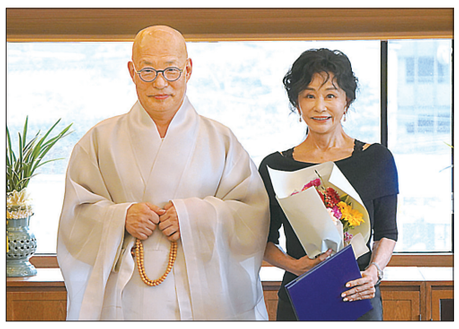
무대와 봉사 활동 못지않게 그의 삶을 지탱하는 또 하나의 축은 수행이다. 진미령 씨는 매일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법화경 약찬게〉 사경을 이어가고 있다. 바쁜 일상에서도 잠시 시간을 내 펜을 잡고 경전을 옮겨 적는 시간을 그는 "마음의 안식을 찾는 순간"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 자 한 자 써 내려가는 과정에서 잡념이 사라지고 부처님 가르침이 고스란히 가슴에 새겨진다"면서 "사경 수행은 일상과 무대를 더욱 맑고 단단하게 지탱해 주는 힘"고 말했다.

진미령 씨는 "앞으로 걸어갈 길이 분명하다"고 했다. 연예인전법단 전법단장으로서 불교계 행사를 이끌고, 생명나눔 운동을 알리며, 일상에서 사경 수행으로 불심을 다져가는 모습. 바로 노래하는 불자로서, 나누는 불자로서, 그리고 부처님 법의 기쁨을 전하는 불자로서의 삶이다.

무대 위의 스포트라이트가 꺼진 자리에서도 불자로서의 마음을 지니고 살아가는 그의 삶은 아버지가 일찍이 가르쳐 주신 것, 바로 '남을 돕는 것이 곧 불자의 길'이라는 단순하면서 가장 깊은 가르침과도 맞닿아 있다.



바쁜 일상에서 매일 조금씩이라도 시간을 내 꾸준히 〈법화경 약찬게〉 사경을 이어가고 있다.



올해 7월 3일,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으로부터 연예인전법단 전법지원단장 임명장을 받았다.



2023년 생명나눔실천본부 홍보대사로 위촉돼 걷기대회 등에 참여하며 생명나눔의 가치를 세상에 알리고 있다.



2022년 조계종 연예인전법단 출범과 함께 핵심 멤버로 참여한 가수 진미령 씨는 2025년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으로부터 연예인전법단 전법지원단장으로 공식 임명됐다. 그는 노래하는 불자로서, 나누는 불자로서, 그리고 부처님 법의 기쁨을 전하는 불자로서의 삶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